

예수님을 닮아 사는 우리들의

작은 마음

제2373호 2024. 11. 3. **연중 제31주일**

제1독서 : 신명기 6,2-6

제2독서 :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7,23-28

복 음 : 마르코 복음서 12,28ㄱ-34

발 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초등부

주 소 : 03083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56 가톨릭 청소년회관 내 '작은마음'

이메일 : chota_littlemm@naver.com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마르 12,30-31



Sr.WonGabriela

그림_ 가브리엘라 수녀님



오늘의 미사

- ★ 화 답 송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알렐루야.
- ★ 영성체송 주님,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리이다.

•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



11월은 '위령 성월'입니다.

'위령이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특별히 위령 성월에 **교회와 함께**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연옥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기억하면서 아래와 같이 특별한 미사를 봉헌 합니다.

11월 1일 모든 성인 대축일 : 하느님 곁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모든 성인들을 기억하는 미사

11월 2일 위령의 날 : 위령의 날 미사에서는 특별히 죽은 이들과 연옥 영혼들을 위한 미사

우리가 미사 때 마다 바치는 사도신경은 위령 성월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 있어요.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라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인의 '통공'은 무엇일까요?

'통공'이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하느님 나라에 있는 이들과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 정화가 필요한 연옥 영혼들 이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각자의 선함을 선함을 나누고, 기도 안에서 영적인 도움을 주고 받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미사 때마다 사도 신경을 바치면서 세상을 떠난 이들을 기억하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 신경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밀줄 부분에서 모두 깊은 절을 한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Sr.WonGabriela



신부님 말씀

사랑의 초대



13지구 난곡동 성당
류영우 다윗 신부님

✝ 찬미 예수님!

작은마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랑'의 계명을 알려주십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랑이 들어갈 자리, 하느님이 들어갈 자리, 사랑할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겠죠. 마치 집에 누군가를 초대하는 것과 같아요. 누군가를 초대한다고 해놓고, 문을 잠가놓거나 초대한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진심으로 초대한 게 아니겠죠?

사랑은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내어주고, 시간을 내어주고, 함께할 공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만약 내 모든 것을 내어준다면 어떨까요? 그곳에 그 사람이, 그 사랑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게 나와 상대방은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작은 마음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 목숨까지 내어주셨지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에는 사랑과 작은마음 친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내 마음 속에 그 사람을 간직하게 됩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마음을 하나, 둘 알 수 있게 되지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함께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꺼이 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내어줄 수 있게 되지요.

사랑하는 작은마음 친구들! 우리, 예수님 초대에 응답해서 누군가를 사랑해 봅시다. 그 사랑 안에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하실 거예요.



제29회 작은마음잔치

지난 10월 20일(주일)에는 명동성당에서 제29회 작은마음잔치가 열렸어요.
많은 성당의 어린이들이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사진으로 함께 만나 볼까요?



시상식 & 전시회

작은마음 친구들이 보내 준 작품들 중에서 가장 멋진 작품 111점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명동성당 마당에서 전시회도 진행했어요.



체험 부스

서울대교구와 의정부교구의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다양한 체험부스를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